

배재규 사장 “장기적으로 자산 늘리려면 성장산업 투자해야”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간담회

국내 5대 전략산업 ETF 신규 상장 반도체기업 등 10개 종목 압축투자 “韓 첨단산업 생태계 하나로 답아”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으로 ‘방향’과 ‘시간’을 제시했다.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라 매매하기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성장산업을 찾아 장기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러한 철학을 국내 5대 전략산업에 적용한 상품이 오는 11일 상장하는 ‘ACE 반도체 Plus 전략산업 상장지수펀드(ETF)’다.

배 사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자는 방향과 시간의 함수”라며 “방향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논리의 영역이고, 시간은 투자한 뒤 발생하는 변동성을 견뎌내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늘리려면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을 선택하고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 반도체 Plus 전략산업 E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방산·원전 등 5개 산업에서 대표기업 2개씩을 선정해 총 10개 종목에 압축 투자한다. 배 사장이 기본 아이디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 자동차는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재의 ‘Plus’ 산

업으로, 향후 경쟁력 있는 다른 성장산업으로 교체될 수 있다.

배 사장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이 미래 성장산업 투자라는 기존 철학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AI 산업의 성장에는 반도체와 전력 등 제조업 기반의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가 인프라 구축 이후 수요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산업과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AI 연산 속도와 용량을 높이려면 반도체를 계속 고도화해야 하고 교체 수요도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AI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배 사장은 “비록 제조업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인 반도체와 전력·에너지는 테크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과 방산도 상품 운반과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필수 산업으로 꼽았다.

배 사장은 레버리지 상품을 예로 들며 투자 방향이 맞더라도 높은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면 장기 보유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향이 맞아도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며 “경쟁력 있는 5개 산업을 하나로 묶어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200과의 차이도 강조했다. 코스피200이 한국 주식시장 전반과 ‘현재’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신상품은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을 선별해 한국 경제의 ‘미

래’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그는 “코스피200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이 가진 모든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이 상품은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과 서로 연결된 첨단 제조업 생태계를 하나로 답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ACE 200을 보유한 분들도 이 상품으로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가 적절한 진입 시점인지는 알 수 없으며 향후 성과를 장담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사장은 “한국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상품에 투자하면 안 된다”며 “한국의 미래를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의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많이 오르거나 빠지는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며 “전망과 타이밍보다 방향과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민해 만든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린 마틴 사장 “韓, 세계 최고 수준 자본시장”

〈뉴욕증권거래소〉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세미나 참가 제도 중요성 강조… “신뢰 확보해야”

“우리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했던 것은 기술 혁신보다 먼저 기반이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장이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앞서 시장 인프라와 규칙, 투자자 신뢰부터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금융과 탈중앙화금융(DeFi)이 결합하는 전환점에서도 혁신을 안전하게 수용할 제도적 기반이 먼저라는 조언이다.

마틴 사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인프라와 규칙, 그리고 시장의 무결성이 먼저 자리 잡은 뒤 기술 혁신이 뒤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의 NYSE 방문을 언급하며 “한국 자본시장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장.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했다.

마틴 사장은 230년이 넘는 NYSE의 역사가 기술 발전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둘러싼 선택이 쌓이면서 세계 장기자본을 끌어들이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NYSE는 올해 하반기 주 5일 기준 거래시간을 기존 16시간에서 23시간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 7월6일부터 원·달러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거래시간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준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토큰화 증권 거래와 온체인 결제를 위한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지난 7월에는 미국예탁결제원(DTCC)의 토큰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마틴 사장은 “오늘 우리는 전통금융과 탈중앙화금융이 만나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있다”면서도 “새로운 DeFi 기술을 전통적인 시장에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제도적 틀이 그 경계를 설정한다”고 말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와 정교함, 그리고 의지를 갖춘 경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러한 잠재력이 얼마나 빠르게 완전히 실현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준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는 지금 우리 경제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정책 과제”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카카오페이證,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코프로 가능

카카오페이증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상장주식을 1000원부터 살 수 있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나선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달 투자매매업 인가를 취득한 이후 첫 리테일 서비스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해외주식에 도입한 서비스를 국내주식으로 확대한 것이다.

거래 단위는 최소 0.0001주다. 종합계좌에서 약정에 동의하면 금액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다. 소수점 주문은 정해진 시간에 모아 일괄 처리되며, 주문 시간 외에는 예약주문으로 접수된다. 소수점 주식이 1주 이상 모이면 온주로 자동 전환된다.

온주와 소수점 주식을 한 화면에서 함께 사는 ‘혼합주문’도 제공한다. 투자자가 2.5주를 입력하면 온주 2주와 소수점 0.5주를 별도로 주문하지 않아도 한 번에 처리된다.

거래 가능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등 3개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허정윤 기자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이석장 대표 체제

한국딜로이트 그룹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로 이석장 마케팅 대표(사진)를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신임 대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자동차 그룹의 재경본부와 기획실, 그룹 기획조정실 등을 거쳐 그룹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1년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에 합류한 이후 자동차와 우주 산업, 수소에너지,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자문을 담당했다.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이 신임 대



표의 산업 현장 경험과 회사의 AI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고객사의 실질적인 AI 혁신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신임 대표는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딜로이트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해 고객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투증권 “연금자산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총 연금자산 실시간 평가’ 서비스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총 연금자산 실시간 평가’ 기능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기능은 연금 계좌에 담긴 ETF와 리츠(REITs), 상장인프라펀드, 현금성 자산 등의 잔고 변동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개별 계좌 및 총자산 메뉴에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기존에는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매매

하더라도 이에 따른 현금 잔고 변화가 실제 결제일인 D+2일에 화면에 반영됐다. 새 기능이 적용되면서 투자자는 매매 직후 변동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전체 연금자산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은 연금 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MTS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ETF 적립식 자동매수와 장내채권 매매 등 비대면 연금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다른 금융사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확정기여형(DC) 계좌의 보유자산을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전하면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네이버페이와 신세계상품권, 배달의민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한투 고객이라면 누구든 확실하게 실시간 잔고를 확인하며 연금 투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연금 서비스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NH투자증권, ‘N2 PLUG’ 정식 출시

NH투자증권은 오픈API 서비스 ‘Namuh PLUG(나무 플러그)’와 ‘N2 PLUG’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PLUG는 고객이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과 NH투자증권의 거래 시스템을 연결해 시세 조회와 잔고 확인, 주문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웹트레이딩시스템(HTS)이 제공하는 정형화된 기능에서 벗어나 투자자가 자신의 전략을

직접 설계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

서비스명에는 플러그를 꽂듯 누구나 거래 시스템과 쉽게 연결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식 출시를 기념해 Namuh PLUG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API 사용 신청을 마친 고객에게 국내주식 매매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